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相奉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復學·再入學者 納入金 대폭引下

7일學處長會議 2學期부터 施行

復學時 引上差額 면제

全額서 半額으로 除籍生의 再入學金

○…한국 大學街에 共通的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學費滯納金(수업료및 기성회비)納入者의 復學시에는 종전처럼 引上差額을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실험실습비및 자치비를 추가납부하게 되어있다. 또한 休學時 등록금전액을 납부한 학생은 復學時에도 등록금 차액추가납부 없이 등록이 계속 유효하므로 復學願만 제출하면 된다.

除籍者및 미등록제적자의 再入學金은 개정되기전에는 신입생입학금과 동일한 입학금을 납입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입생 입학금의 반액만 납부하도록 되었다.

단 제적후 4년이 지난 者는 재입학시 입학금전액을 납부하야만 한다. 이와같은 개정은 지난 3일 개최된연합우등학생과 李瑄根總長과 學處長과 優等奬學生들과의 懇談會에서 決議로 보았다.

○…施行令이 대폭 改正됨으로써 復學및 再入學者의 納入金 問題를 定例學處長會議에서는 李總長을 主宰로 열린 金仁鎬敎務處長이 提起되었던 同問題를 上程, 決議를 보았다.

○…指定校에서는 休學期間의 불자는 休學登錄金(수업료및 기성회비)納入者가 復學시에는 종전처럼 引上差額을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실험실습비및 자치비를 추가납부하게 되어있다. 또한 休學時 등록금전액

◇李總長과 各學處長들이 體育館앞 정원에서 記念植樹하고 있다.

李총장자신 간담회에서 손꼽는 再入學者 미등록제적자의 납입금문제가 本校에서는 同一○○○

總團의 校風確立운동

社說

지난 3월28일부터 1주일간 총학생회에서 실시하여 교내 교풍확립을 전개한것은 그 시기로 보아 지극히 적절한 사업이였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 거교적캠페인 행사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부한한 可能性, 誠實한 大學生活로 라는 말을 깨한것은 大學의 知性을 4월의 봄바람속에 남김없이 충격주었을 뿐만 아니라, 未來志向的인 대학인의 자각과 결의를 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5천동국인에게 고무적인 감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總長님의 훈시에서도 일찌기 강조된 바 있지만 大學敎育의 경우 학교당국은 20%만 학생진도에 힘쓰면 족한것이며, 나머지 80%는 학생들자신이 자발적으로 면학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 총학생회가 학내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궐기한것은 대학생의 자율적 일부를 충분히자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大學은 管理當局·敎授·學生의 3者가 통적서 이룩되는 機關이다.

그런므로 교풍확립의 구호는 학생측에서 먼저 선창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소기의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인 위 3者의 물심불없는 상호협조를 전제로한다고 할것이다. 東國中興이란역사적 使命의 완수도 역시 그학같은 協同단결없이는불가능할것이다.

첫째 학교당국에서는 새학년도를 맞이하여 교학행정의 刷新을 기하고자 首腦部의 진영을 다시 정돈하여 總長의 지속 브레기관의 강화를 기하기 위해 企劃室을 창설하는 한편, 學處長의 보조기관의장학을 위해 單大別 교학과장제를신설하였으며 나아가서 기존의 소수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능률을 올리도록 교무기획 위해 事務職員의 대폭이동을 단행하였다.

새 機構의 창설, 각부서에의 새 사람들의 배치등으로 대학의 교학 및 사무행정부처들은 한층 더 活力을 발휘하게 될것이며, 이것으로 총학생회가 추진하려는 교풍확립과 면학분위기조성이라는 의욕적인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수있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할것이다.

둘째, 大學은 부엌보다 敎育의 殿堂이므로 敎授의 任務는 대학발전의 原動力이라함은 새삼스럽게 再言을 요치않는 바이다.

더구나 國家的으로 다난한 시국에 처해 敎授들은 國家的·敎育的 使命感을 다시한번 엄숙히 省察해야할 것이며, 새학년을 맞이하여학생들이 스스로 勉學雰圍氣를 세워하였다고 의치고 나서는 이때 교수들도 이에 호응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교수는 학생을 가르쳐야한다는 제1차적이며至上의 義務를완수할 마음가짐을 한번 더분명 다짐할 때라고 생각한다. 勉學분위기를해치는 교수들편의 유감스럽게 要因이 있다고 지적되는 한건은 즉각 고쳐져야할 것이다.

동국의 풍풍을 가르는 퇴폐적 「만네리즘」의 병폐가 安逸과 나태와 무관심과 책임회피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세째 면학분위기 조성의 주요한 풍요한것이 圖書館이다. 이번 도서관에서는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熱望에 답하기 위해 지난1일부터 도서관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관하게되었다. 개관시간의 대폭연장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자리를 오래 제공하게 되었다. 다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점이 여전히 지적되고있음은 반성해야할점이다.

오늘날 大學은 커다란 集團으로 팽창되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집단생활의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 집단은 秩序를 요구하며 절서는 상신할 때 깨여져 없어질 것이다. 도서관의 분위기를 유지하여 면학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소한 공동생활의 意識이 자발적으로 육성되어야하며 共同體의 道義心이 앙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인다운 자발적절서확립의출발점은 어디 보다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것이다.

이상 새학년을 맞이하여 교풍확립,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총학생회의 활동의 의의는 참이 보고 대학당국의 이에 대한 협조의 태세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사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역시 교수와 학생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요말됨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전개시킨 면학분위기 조성캠페인이 좋은 결실을 거두어 교내에 면학과 교풍이 충만하는 날에 틀림없이 이룩하리라 바란다.

社說

分化와 統合

<申宗淳 〈行政大學院長·政博〉>

大學은 知育, 德育, 體育의 場이라고 하는데 그 中에서도 知育에 比重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知育에 있어서는 단순히 知識을 傳達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知識을 開發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社會에 直接으로 寄與하는 것이 要請되고 있다.

知識의 領域은 점차 더 넓어지고 學問의 分化도 더해가고 있다. 學問分野間의 交流가 强調되고 이러한 交流를 통한 綜合大學의 長點이 있다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 交流는 이론과 같은 學問分野를 理解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學問分野에서도 專攻이 다르면 서로 理解하기가 쉽지 않다. 學問分野에 있어서 分化도 더해가고 있고 이것은 不可避한 社會發展의 현도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特히 社會의 問題에 관해서 科學的·倫理的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根據가 없지 않다. 哲學的 社會科學에 있어서 理論과 理論, 主張과 主張이 상대는 바탕적 하지만 「知識은 힘」이라고 하지만 누구와 무엇을위한 知識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 무지 않다. 社會科學에

圖書館주간

◇ 大學의 심장이며 중추기관인 圖書 館. 모든 국민에게 讀書의 重要性과 圖書館利用의 生活化를 고취시키기 위한 社會 운동으로서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도서관주간이 금년으로 제11회 (4월13일~19일) 를맞는다. 本紙는 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實務者를 통해 도서관업무의 새경향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大學圖書館의 中央化와 分散化

—大學圖書館의 問題點

朴熙永 <圖書館 司書課長>

學問高度化로 分館化 경향

分館엔 專門的인 資料만 구비

統一的인 관리·분류·목록 법도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대학교에는 대학내의 여러 단과대학이 있고 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특수분제와 학문을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한 여러 명칭의 연구기관들이 부설되어 있으며 그 연구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 반드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

근자에는 대학내의 종합적인 도서관외에도 단과대학을 단과대학마다, 연구기관을 연구기관마다 각기 별도의 도서관을설치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과대학이나 부설연구기관들이 도서관을 설치하게된 원인은 도서관과의 거리가 멀다든가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대출받으며 수속과 대출기간등 수속이 귀찮고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될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학문의 고도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도서관 기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며 어느 한가지 학문만의 전문도서 설치의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자료를 구입 또는 기증을 받아 구비해놓고 손쉽게 아무런 제재없이 이용하다가 자료의 수가 증가되면 따라 소규모이면 지 않은 별개의 특별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다. 중앙도서관과 부설도서관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도서의 상호 대출 및 복사 등 협력하는 일은 도서관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이며 도서관의 보존 및 보관과 관리 등 업무에 있어 보다 능률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이며 그 연구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학문의 발전과 보조

新着圖書

日帝治下 言論·出版의 實態
<金根洙編著·永信아카데미韓國學研究所>

이 책의 내용은 編者의 「1920년대의 언론과 언론정책」을 독자의 참고를 위하여 수록했고, 또 日帝治下에서 발행된 출판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朝鮮內發刊 新聞紙一覽表, 1933년 3월1일현재 朝鮮文藝發行 出版物一覽表를 아울러 수록했다.

近代化와 救國運動
<韓國學資料叢書 第3輯—新聞論說集·永信아카데미韓國學研究所>

이 책은 1883년부터 1945년까지의 우리나라 신문 곧 漢城旬報, 漢城周報, 독립신문, 매일신문, 태극신문, 皇城新聞, 時事叢報, 大韓日報, 大韓每日申報, 萬歲報등에서 자료를 취했다. 이에는 주로 「近代化와 救國運動」에 관련있는 논설류만을 善韓宋과 해외에서 간행된 신문에서 취사·채록했다.

韓國學論說索引
<永信아카데미韓國學研究所>

이 책은 1883년부터 1945년까지의 우리나라 신문 곧 漢城旬報, 漢城周報, 독립신문등 30여종 신문중 중요 신문 기사만을 추려 색인으로 삼아 편찬한 신문종합색인이다. 그리고 이에는 韓國學 연구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는 韓國學 상으로 삼았다. <圖書館提供>

얼음속의 神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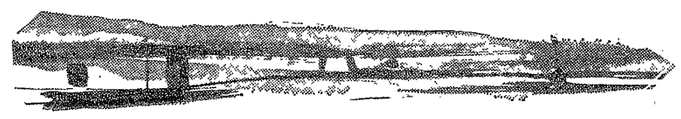
◇水中探險을 위해 갑판위에서 장비를 점검하고있는 光景.

水中探險部 동계탐험 報告

<金松洙 <水中探險部長·師大敎授>

68년이래 7번째에 얼음속을 탐험한다는 「인데아이스」라는 신기원을 이룩하기 위해 1, 2차에 걸친 10여일간의 冬季적 응훈련을 마쳤다. 탐험대원들이 현지로 출발하기 위해 한강 광나루지구의 「다이빙·룸」에 집합한 것은 강추위가 몰아치던 지난 1월말이었다.

지도남양의 착빙 동분선배등 3名과 지학생 8名이었다. 정열과 투지에 불타는 11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1月29日 오전11시 브



두들 「다이빙」 장구및 「롭프렛선」 작동상태 점검을 마치고 한자튜의 「다이빙」 표적지로 장비운반및 현지점검을 돌마쳤을때는 11시50分.

3명의 대원이 얼음을 깨는 作業및 부대설치를 하는 동안 B조 3명의 대원은 「아루아-렌」(산소통)에 「에어차지」를 시작하고, 또한 C조 대원들은 준비한 장작에 불을 붙여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얼음설원의 장면을 녹이는 동안 「다이빙·에렛」

조인 2명의 선발대는 UDT식의 수중작업훈련인 PT체조에 들입하여 구보와 맨손체조를 시작한다.

이로써 수영복 차림에 「우리그」만 걸친 맨발의 대원들은 바늘방석위를 뛰는 기분으로 온몸의 피부는 핏으로 흑백 젖을 때까지 체조를 했다.

오전12시27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선발대가 작수 착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隊長의 주의사항은 현재 영하7도 3분의 맑바람치는 강추위를 녹이듯 자부심과 투지에 불타는 22개의 눈동자들에 더욱 박차를가한다. 작수시 수심 50피트이하는 삼가야한다. 보조자일의 작동상태를 확인해가며, 「페어」를 꽉 쥐고 잠자하여 불빛 달로